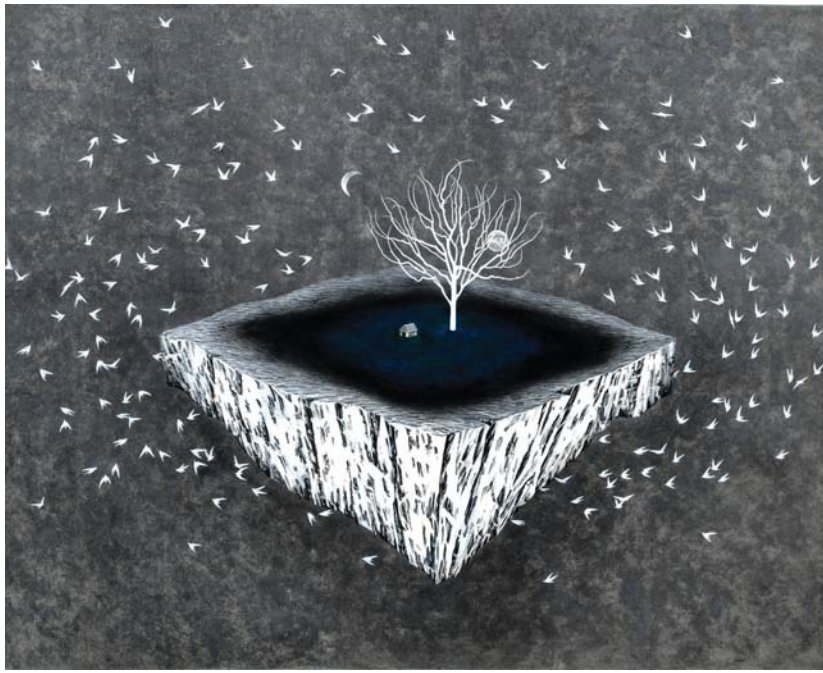


책표지를 감상하다

광주 지역 화가 작품, 소설 표지에 등장
하성흡·윤준영, 정도상·김숨 신작 장식
이정기 작가 삽화, 정찬주 ‘광주아리랑’에



윤준영 작 ‘... 끝도 없이 적막해졌다’ → 김숨 소설 ‘떠도는 땅’

요즘 출간되는 책들을 살펴보면 작가들의 그림을 표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고(故) 황현산 평론가의 책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의 사소한 부각’에 등장하는 팀 아이텔의 작품이나 최근 화제작으로 떠오른 소설가 김봉곤의 ‘시절과 기분’과 전작 ‘여름, 스피드’ 표지에 쓰인 헨리 스크류크의 그림은 책 내용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잇따라 소설 작품의 표지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나온 뜻 깊은 책 정도상의 소설 ‘꽃잎처럼’ (다산초당)에는 한국화가 하성흡 작가의 ‘그날 새벽’이 표지로 실렸다.

5월을 다룬 단편소설 ‘십오방 이야기’로 등단한 ‘친구는 멀리 갔어도’ 등으로 유명한 정도상의 ‘꽃잎처럼’은 1980년 5월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전남 도청을 지켰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당

초 ‘도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었던 소설은 주인공 ‘나’를 제외한 등장인물이 모두 실재했거나 실재하고 있는 인물이다.

표지에 실린 ‘그날 새벽’은 하성흡 작가가 지난해 한지에 수묵과 콩테로 그린 작품이다. 유리창을 통해 도청 밖을 무심한듯 바라보고 있는, 총을 든 한 남자의 옆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검은색의 투박함 속에 강한 인상을 전한다. 5·18 당시 대동고 3학년이었던 하 작가는 지난해 개인전을 준비하며 ‘도청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장 그렸다. 두 남자가 창밖을 보며 총을 겨누고 있는 또 다른 ‘그날 새벽’과 ‘그의 마지막’ 등이다.

하 작가는 “당초 표지는 다른 작품이었는데 전주 우석대 이재규 교수가 우연히 내 그림을 보고 비극적 소설의 내용에 어울린다는 생각에 출판사 쪽에 제안을 했다”며 “출간 직전에 출판사로부터 표지로 쓰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성문화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숨 작가의 신작 ‘떠도는 땅’ (은행나무)의 표지화는 젊은 작가 윤준영의 ‘가끔은 끝도 없이 적막해졌다’ 시리즈 중 한 점이다.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복원 과정을 다룬 ‘1의 운동화’,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한명’ 등을 발표해 온 김숨 작가가 이번 소설에서 주목한 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다.

‘떠도는 땅’은 1937년 소련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이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건을 다룬다. 화물칸이라는 열악한 공간을 배경으로 열차에 실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린 소설은 고려인들의 비극적 삶과 ‘뿌리내림’을 갈망했던 그들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인터넷에서 작품을 본 출판사 편집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정 작가는 소설 내용과 작품의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책 표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새와 뿌리박힌 나무, 위안을 주는 집의 존재 등이 어우러져 있다. 한지에 먹과 콩테로 작업했으며 검은색, 회색과 함께 신비로운 느낌이 묻어나는 푸른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감성을 전한다.

윤 작가는 “고려인 강제이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인 것 같아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지역에는 고려인 마을도 형성돼 있는 만큼 이 책이 우리 가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찬주 작가가 광주일보에 31회 연재했던 소설을 묶은 ‘광주 아리랑 1·2’ (다연)에는 이정기 작가의 삽화가 함께 실렸다.

오월 항쟁 14일간의 웅내버스 형식으로 다룬 다큐소설인 ‘광주 아리랑’에는 당시 광주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촘촘히 담겼고, 이 작가는 소설의 장면을 다양한 시각으로 묘사한 삽화를 제작했다. 책의 표지에는 광주 시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는 5월 16일 ‘햇불시위’ 모습을 담은 그림이 컬러로 실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정기 작가가 그린 ‘광주 아리랑’ 삽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정향자 작 ‘감지금니장엄경’

2년동안 5월 희생자 784명

2m×2m 크기에 금으로 사경

극락표현 ‘변상도’ 화려함 더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새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 분의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하는 하는 생각이요. 제가 정성을 담아 이름을 써 드리니 이제 편히 저 세상으로 가시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경(寫經) 작업에 전착해 온 정향자 작가는 최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빛을 갇았다. ‘사경’ 작업이 불교를 전파하는 것 뿐 아니라,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고 빌어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오월 영령들’이 떠올랐다.

1980년 5월, 금남로 소아과에 들렀다 학생들이 두들겨 맞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움에 떨며 5살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도망치던 일,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을 피투성이가 된 시체의 모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고 연재가는 위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만 있었지 엄두를 못냈던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쓰

면서 사경의 진정성을 발견했고, 오월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작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후 5·18 묘역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자료와 책을 읽고, 5·18 기념관에서 자료와 평단을 입수해 작품을 구상했다.

정 작가는 최근 2년 동안 5월 희생자 784명의 이름을 금으로 정성들여 쓴 ‘감지금니장엄경(紺紙金泥莊嚴經)’-5·18민주항쟁 희생자추모’ 작업을 완성했다. 2m×2m 크기의 대형 작품인 이번 사경에는 극락을 표현한 ‘변상도(變相圖)’로 화려함을 더해 눈길을 끈다. 또 그림의 사방 가장자리에 금강저(金剛杵)를 그려 넣어 이 작품이 수백천년이 지나도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서원을 담았다.

금은 원원불멸과 권위와 부를 상징한다. 감지금니사경의 장점은 탈색이나 변색되지 않고 향균과 병충해에 강해 금빛 찬란하고, 보존성이 강하다. 정 작가는 사경 작업의 기본자세는 청정함이기에 몸과 마음과 도구와 재료의 청정함을 갖추고 작업에 임했다고 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